

약사불은 얼마나 많은 중생발원 들었을까

암자를 찾아서

③ 광주 무등산 약사암

자연과 따로지지 않고 일점을 더하듯 세워져 어느새 스스로 자연이 된 암자 약사암. 암자는 봉우리를 품고, 봉우리는 암자를 오랜 지기로 마주보는 모습에 보이는 이의 가슴이 저절로 따뜻해진다. 약사암은 이렇듯 서로 다독이며 어울려 살아가려는 부처님 말씀을 말 없이 전해준다.

약사암은 호남의 진산인 무등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 '無等', 비할데 없이 높은 산이자 평등을 상징하는 불교에서 비롯된 이름을 지닌 산이다.

약사암의 주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이다. 이번으로는 도심 속에 있는 듯 보이지만 무등산 속에 숨어있는 작은 암자다.

중심사로 가는 길을 따라가다 중심사 일주문이 보이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중심사로 향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약사암이 나온다. 600미터쯤 올라가 노라면 일주문이 날아갈 듯 서 있고, 약사계곡 왼쪽 분지에 그림 같은 새인봉을 바라보며 자리잡은 약사암이 보인다.

약사암은 신라시대에 철감선사 도운(道允) 스님이 문성왕 9년인 847년 당나라에서 귀국한 뒤 창건해 인왕사(人王寺)라고 했다가, 고려 예종(1105~1122) 때 국사 혜조(慧照) 스님이 중창하며 절 이름을 약사암으로 바꾸었다. 조선시대인 1856년(철종 7) 3월 성암(性庵) 스님이 약사전을 중수하고, 1905년 9월에 선주(善周) 스님이 관찰사 주석면(朱錫冕) 등 관청의 도움과 시주로 중건했다. 1970년대부터 석담(石潭), 종일(宗-) 스님 등이 중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무등산 내 대부분의 사찰과 달리 약사암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 때문에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사적으로 광주시 문화재자료 2호로 지정되었다.

약사여래를, 찾는 이의 마음을 치유해

약사암 법당에는 신라 하대인 9세기에 만들어진 석조여래좌상이 안치되어 있다. 질병에 빠진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약사불은 중생들에겐 가장 필요한 부처의 모습이다.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은 본존불과 대좌가 일체형으로 조성되어, 불상과 대좌를 포함해 226cm에 이른다. 8각 연꽃무늬 대좌에 앉으신, 유난히 넓은 무릎의 이 약사불은 천 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중생의 기원을 들었을까?



약사암 나한전 전경. 약사암은 한국전쟁 때에도 피해를 입지 않아, 옛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주변경관과 함께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상당하다.



대웅전 내부에 모셔진 보물600호인 석조약사여래좌상



대웅전 앞 3층석담. 무너진 탑재를 모아 복원한 것이다.

신라시대 철감선사 도운 스님이 창건

한국전쟁때 피해 없어 옛모습 간직

토속신앙과 불교 융합된 모습 전해져

석조여래좌상은 두 손의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오른손은 무릎위에 놓고 향마촉지인을 하였고, 왼손은 결가부좌한 발위에 올려놓은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석굴암 본존불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가는 허리와 경직된 어깨 등은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1856년의 약사전 중수 기록에 의하면 이 불상을 약사여래로 부르고 있다.

석좌의 사각형의 지대석은 하층기단과 함께 하대석·중석·상대석으로 이뤄져 있다. 하대석은 연꽃무늬를 조각해 4개의 중석을 받치고 있다. 중석은 모서리에 귀기둥만을 조각했으며, 상대석은 평면이 원형이고, 연꽃잎 안에 또 다른 꽃무늬를 새긴 화려한 양식을 갖췄다.

두툼한 입술, 보일 듯 말듯한 미소, 중생을 향한 지극한 연민과 무명이 못내 안타까워 애타시는 마음의 바다가 보이는 듯하다. 비에 젖은 숲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한동안 바라보고 있다.

민족신앙도 함께 보듬은 산신비

약사암 경내에는 1980년에 건립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팔작지붕의 대웅전, 정면 6칸, 좌측면 5칸으로 '1'자 모양의 민도리집인 요사채가 있고 대웅전 뒤편으로 팔작지붕의 정면 3칸, 측면 1칸의 운림당이 있다. 달빛이 교묘한 달밤은 약사암 풍경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풍경에 마음이 동한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쉬운 일이니만큼 깊은데서 오는 깨달음이 아닐지도 모른다.

무너진 탑재를 모아 복원한 삼층석담도 또 다른 볼거리다.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탑으로 기단부는 본래의 석재가 갑석밖에 없어 원형을 짐작하기 어려우나, 현재는 중석의 모서리에 귀기둥만을 새긴 단층기단으로 남아 있다. 2층과 3층은 복원할 때 새로 만들었고, 옥개석은 3층까지 모든 본래의 석재이다.

작은 암자여서 약사암에는 일반적인 산신각을 대신해 산신비가 있다. '瑞石山神之神'가 새겨진 산신비는 대웅전 좌측 위편에 위치해 있다. 약사암은 왕의 옥새를 뜻하는 세인봉과 천제단(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 중간에 위치한 사찰로 예로부터 토속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신앙이 전해져왔다. 특히 단군왕검을 비롯해 한민족의 발원과 함께 이어져온 수

호신령들이 산신으로 표현돼 모셔져 있다. 무등산에는 매년 단군왕검에 의해 개국된 고조선을 기념하는 개천제가 열리고 있다.

수려한 경관 한복의 그림 같이

약사암은 계절별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봄에는 사찰경내와 산행 길에 피어나는 철쭉이 첫 번째 장관이다. 여름은 계곡과 편안한 휴식을 자랑하는 명소이다. 가을은 사찰 곳곳에 상사화가 핀다. 그리고 단풍과 은행나무 잎이 물들면 사찰 차분사림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차편을 벌이고 시민들을 위한 '들차회'를 개최한다. 흰 눈이 내리는 겨울은 눈 치우는 윤력이 만만치 않지만 눈꽃의 아름다움은 사찰 탐방의 백미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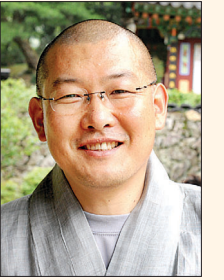
약사암 앞마당에서 바라본 새인봉은 여제처럼 들어와 있고 그 위로 잘 닦인 눈썹 같은 보름달이 떠 있다. 약사암에 오면 아무리 미워한 마음도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녹을지도 모른다. 거기에 부처님의 법문이라도 듣고 싶노라면 성과 속이 돌이 아니고 사랑과 하늘이 따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약사암이라 이름했는지도 모른다. 마음이 번다해 질 때 중심사로 가는 길을 잡아 조용히 약사암에 오르면, 우리의 번뇌들이 어느새 달아나 있을 것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시민 치유도량으로 발돋움”

주지 운산 스님

“약사여래를 모시는 절인만큼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도량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약사암 주지 운산 스님은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약사여래의 원력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약사암은 광주 도심과 가까운 무등산에 있는 사찰로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이다.

이런 연유로 매주 일요일마다 시민들을 위한 무료 국수봉사와 전통차를 대접한다. 일요일 국수봉사가 날이면 산행을 즐기는 가족들과 등산객들은 약사암에 들러 감로수와 같은 국수를 먹는다. 2009년에 시작했으니 벌써 6년째이다.

운산 스님은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내방객들이 많이 늘었다. 평소 150~300 그릇 정도를 대접하지만, 본격적인 산행철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절을 찾는다”라고 말한다. 약사암은 일요일 국수 공양 외에서 시민들을 위한 휴식처로 제공하고 있다.

“절에 오신것도 고맙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바라본 보아도 행복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쉬었다가셨으면 합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주변 둘러볼만한 곳

▲중심사

무등산에는 약사암 외에도 중심사, 원효사, 규봉암, 문빈정사 등 많은 사찰들이 있다. 이중 중심사는 송광사 말사로 철감(鐵鑿) 선사 도운(道允) 스님이 개창하고, 고려 선종 11년인 1094년에 혜조(慧照) 국사가 중수했다. 경내에는 오백전(五百殿)·3

층석담·5층석담·7층석담·오백나한(五百羅漢) 및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131)·석조보살입상 등이 보존돼 있다.

▲의재미술관

이와 함께 우리 민속화를 볼 수 있는 의재미술관도 지적에 있다. 무등산 중심사 계곡을 거슬러 올라 가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담한 현대식 건물이 있다.

이곳이 바로 의재미술관이다. 의재미술관은 의재 허백련(敎齋 許百鍊)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미술관이다. 1891년에 진도에서 태어난 의재 허백련 선생은 20세기 우리나라 남종화의 대가(大家)이다.

의재 선생은 무등산 자락 춘설현에 기거하면서 많은 명작을 완성하였다. 미술관 뒤편으로는 무등산 춘설 녹차밭이 있고,

그 앞에는 의재 선생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춘설현과 의재묘소 등이 있다.



의재미술관 내부 전경

파손, 도난 걱정 끝!!

이제는 범양금고 철제 불전함입니다

불자의 신심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기존 목재 불전함의 단점을 한번에 해결한 철제 불전함으로 실내외 어디든 정재보호와 도량장엄의 역할을 다합니다.



◆특징 : 파손 및 도난 걱정 끝, 견고한 통강판 사용, 번호 및 키 잠금장치, 바퀴 부착으로 이동편의

- ① 높이 650 × 너비 700 (85만원)
- ② 높이 620 × 너비 420 (50만원)
- ③ 높이 620 × 너비 350 (40만원)
- ④ 높이 900 × 너비 600 (80만원)
- ⑤ 높이 730 × 너비 600 (70만원)
- ⑥ 높이 1000 × 너비 600 (80만원)
- ⑦ 높이 700 × 너비 700 (70만원)
- ⑧ 높이 740 × 너비 650 (85만원)

◆주문 후 2~3일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 송달비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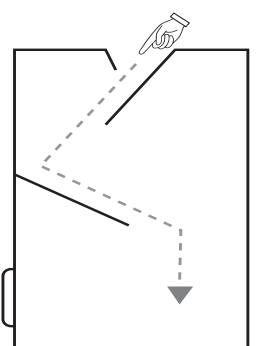
◆시안 제작 후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일반 금고 판매합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 강순길)

- 기업은행 010-5414-2304
- 국민은행 614101-01-048120
- 농협중앙 221103-52-056910
- 하나은행 479-910037-98607

기존 불전함의 투입구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범양금고 031)764-6234. 010-5414-230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길 8 (연곡리 172-5)